

OCI상사, 삼성물산 이상헌 사업부장 영입

OCI상사가 전 삼성물산 무기화학 사업부장을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.

OCI그룹 계열사인 OCI상사는 화학 및 비료시장에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헌 전 삼성물산 무기화학 사업부장을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신규 선임했다고 2월11일 발표했다.

이상헌 신임 부사장은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학과를 졸업하고, 1982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전자재료 팀장, 무기비료팀장, 무기화학 사업부장을 지냈다.

<화학저널 2011/02/11>